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데일카네기팀

	일시	3월 28일 금요일 19:30 ZOOM을 통한 비대면 모임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2151119)	○
		문정민(2311265)	○
		권민서(2553043)	○
		김민찬(2571334)	○
		-	-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8p. ~ 150p.
1주차	토론 내용	 [좌측 위부터 김민찬, 김민, 문정민, 권민서, 오세종교수님] 오세종 교수님과 함께 자기소개 및 첫 활동에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 독서클럽을 하게 된 계기 김민찬: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4회독 할 정도로 해당 책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함께 책에 대한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대학 입학 후 기회가 줄어들어, 독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참여함. 김민: 해당 책 내용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독서클럽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음. 문정민: 독해력을 기르고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해소하고자 독서클럽에 참여함. 권민서: 책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바쁜 대학 생활로 독서가 어려워져, 함께 책을 읽는 기회를 찾다 독서클럽에 참여하게 됨. 읽어 온 부분 중 인간관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각자 실제 대입해서 활용해 본 적이 있는지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음. 권민서님도 책을 읽으면서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사실들을 이 책에서 정확히 집어주니 이해가 쉬웠다고 언급함. 김민찬님은 해당 책의 내용을 많이 적용하며 살아왔는데 좋은 인상을 주고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함.	

2주차	일시	4월 11일 금요일 18:30 학술정보관 3F-2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2151119)	○
		문정민(2311265)	○
		권민서(2553043)	○
		김민찬(2571334)	○
		-	-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part 3. 절반 분량
		 [좌측부터 권민서, 김민찬, 문정민, 김민]	
	토론 내용	2차 활동 시작에 있어서 각자의 MBTI를 공유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대화를 함. part 3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 해당 부분에 따라 기억에 남았던 부분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음. 김민님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를 인상깊게 읽으며 일하는 곳에서 적용한 긍정적인 사례와 자신의 친구의 부정적이었던 사례를 언급. 문정민님이 이어서 편입생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불편한 사례를 언급 함. 김민찬님은 읽어온 부분과 연결 지어 상대방이 30초 내에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면 조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함. 자신이 조언을 해서 바뀐 케이스가 거의 없으며 친구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주니 약간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다고 말함. 권민서님은 누가 잘했네 식의 논쟁은 문제나 감정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 같다고 함. 또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게 공감성의 대답을 해주는데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말투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함. 그에 연결해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었음.	

3주차	일시	5월 19일 월요일 18:30 상상파크 카페 오피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2151119)	○
		문정민(2311265)	○
		권민서(2553043)	○
		김민찬(2571334)	X
		-	-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part 3. 나머지 절반 분량
	토론 내용	[좌측 위부터 김민, 권민서, 문정민] (김민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해당 일자에 활동 사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세종 교수님께서 공통 질문으로 저희에게 상대방(가족, 친구, 상사 등)을 설득할 때 각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물어보셨음. 권민서: 부모님께 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약간의 불쌍한 척을 애교스럽게 말하며 상황을 전달하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상대방을 설득하곤 함. 김민: 지레 겁을 먹거나 하여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닥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음. 조금씩 신뢰를 쌓으면서 미리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이라고 함. 문정민: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해당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줌. 자신의 경험으로 예를 들자면 맛집 블로거 친구에게 피피티 도움을 받고 싶어서 먼저 맛집에 데려가준 적이 있었음.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음. 문정민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행동은 정말 나 스스로에게도 힘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함. 이에 대해 김민, 권민서 모두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힘든 것 같으며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었음.	

4주차	일시	6월 6일 금요일 10:00 ZOOM을 통한 비대면 모임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2151119)	○
		문정민(2311265)	○
		권민서(2553043)	○
		김민찬(2571334)	○
		-	-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part. 4 자유롭게 읽기
	토론 내용	[좌측 위부터 권민서, 문정민, 김민찬, 김민] 권민서님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가 기억에 남았음. 다른사람에게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 두루뭉술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더 편했던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함. 김민찬님은 “실수를 지적할 때 나부터 낮추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고 함. 보통 지적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지적을 할 때 자신을 낮추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함. 자신은 웬만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친한 친구들에게는 장난이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해준다. 금방 바뀔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함. 문정민님 역시 금방 바뀔 문제가 아니라면 나서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든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설 때 가만히 있는다고 이야기 함. 권민서님은 지적을 하는 편인 것 같다고 함. 친구의 안 좋은 점을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수 도 있으니 자신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함. 김민은 친한 사람에게는 직설적이지 않게 지적을 하는 편이나, 친하지 않다면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함. 마지막 활동이라 모두들 방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쉬운 마음을 갖은 채 활동을 종료했음.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민 (2151119)	먼저, 이 활동을 통해 3명의 좋은 사람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그동안의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을 해당 내용 속 조언에 따라 내 삶에 대입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의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를 부담 없이 공유하며 제 안의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문정민 (2311265)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와 거리가 멀었던 나는 조금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보고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 보았다. 조금 놀랐던 점은 거창한 말들이 쓰여져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소소한 배려의 말들이 적혀있었던 것이다. 책 자체의 내용 역시 마인드 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고방식을 배우게 된 것 같다.
	3	권민서 (2553043)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주변 환경이 새롭게 달라져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느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극복해보고자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행동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혼자 읽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팀원들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니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할 수 있었다.
	4	김민찬 (2571334)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진행된 독서모임은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성찰해보는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책 속 조언들이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인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의 태도와 말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실생활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더불어, 관계의 본질을 고민하게 해준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관계에서의 기술이 대한 책으로 생각이 다른 3명의 의견을 들어보니 더더욱 견해가 넓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	-	-